

02 **보도** 학생식당, 지난학기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나?

03 **사회** '줄 세우기식' 대학평가 거부 운동

05 **사람사** "행정사는 블루오션 (Blue Ocean) 이다"

06 **학술** 우리말 유래, 사전만 봐서는 알 수 없다?

07 **문화** SIDANCE, SEE DANCE

## 본교 구조개혁추진위원회 발족해

###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나

특성화 사업 선정 실패와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86%의 정원 감축을 맞이하게 된 본교 지난 9월 한 달간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시름시름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한 시기를 맞이했다. 바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입정원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정부 주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교육부는 구조개혁기간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는 다가올 대학 구조개혁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이하 구조위)'를 발족했다. 구조위의 구성원은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조위의 위원은 <표>와 같다. 주목해야할 점은 김성길(대학노조 한성대지부) 지부장이 직권대표로, 이종혁(총동 4) 총학생회장이 학생대표로 구조위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조위의 간사인 조윤철(교수지원팀) 팀장은 "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구조위는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구조위는 이후 대학 구조개혁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목표와 과제를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조윤철 간사는 "연구와 교육 등에 걸친 대학운영 전반의 혁신과 동시에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확충 및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개혁 평가지표 관리이다. 지난 9월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량지표 중심의 상대평가에서 정성지표를 병행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조개혁 평가지표(안)' 발표했다. 본교는 위와 같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

까? 조윤철 간사는 "유리한 지표도 있지만 불리한 지표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짧은 기간 내에 개선 가능한 지표들을 선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위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정원 감축을 하게 되면 등록금이 비싸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조윤철 간사는 "등록금은 구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부분이지만, 구조위의 입장에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2년간 본교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구조위는 본교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본교가 맞이할 구조개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것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경제학과	총장	강신일
부위원장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
위원	한국어문학부	교수	김정우
	역사문화학부	교수	조규태
	지식정보학부	교수	박지영
	경영학부	교수	이동주
	행정학과	교수	전주상
	부동산학과	교수	백성준
	의류패션산업	교수	채진미
	무용학과	교수	박재홍
	애니제품디자인전공	교수	김홍배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성동
간사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조해경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노광현
	직원 대표	직원(지부장)	김성길
	학생 대표	학생(총학생회장)	이종혁
행정지원	교수지원팀	팀장	조윤철
	기획전략팀	팀장	장영우
	총무인사팀	팀장	전장배
	기획전략팀	팀원	최윤석

### 개교 42주년 기념식 2일 미래관 DLC에서 진행

#### 미래관 DLC에서 진행



한성대학교 개교 42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일 미래관 지하 DLC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강신일 총장을 비롯하여 교수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희순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행사는 연혁 보고, 장기근속포상 그리고 총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교는 1972년 한성여자대학교로 시작해 1978년 한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199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2000년 대학종합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 현재 본교의 학부는 4개 단과대학, 7개 학부 그리고 1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입학정원은 1,620명이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7개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입학정원은 418명이다. 본교는 현재 학부 졸업생 30,608명, 박사 학위자 222명 그리고 석사 학위자 4,025명으로 총 34,856명을 배출했다.

장기근속기념패는 30년 근속직원 1명, 20년 근속교수 17명, 20년 근속직원 4명, 10년 근속교수 2명 그리고 10년 근속직원 2명에게 수여되었다.

30년 근속 공로자인 전장배(총무인사팀) 팀장은 "인생의 절반을 한성대에 보냈다. 한성대는 나의 모교이며 직장이고 아내와의 인연을 맺어준 소중한 장소이다"라며 "2년 뒤에 정년퇴직을 하지만 학교를 떠나서도 잊지 못할 삶의 일부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강신일 총장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한성대가 있기까지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바"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하네 구성원들의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총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기념사를 마무리하며 강신일 총장은 '구조개혁의 파도'를 넘기 위해 대학본부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이 심기일전 할 것을 부탁했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 서울권 32개 사립대학 중 본교 교내장학금비율 14위, 총 장학금비율 7위

### 등록금수입의 13.2%를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해

지난 8일 윤관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반값등록금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은 장학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학알리미 정보공시를 바탕으로 등록금 수입(수강료 수입을 제외한 순수 등록금 수입) 대비 본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비율과 교내장학금의 비율을 살펴본다.

우선 장학금은 크게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대학 외부에서 지원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본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내장학금은 크게 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 등이 있다.

장학금 수혜율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 사업,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대학구

조개혁평가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권 34개 사립대학 중 본교의 장학금 수혜율 순위는 어떨까. 본교의 교내장학금비율 순위는 13.2%로 14위이고, 총 장학금비율 순위는 29.1%로 10위이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의하면 본교의 1인당 총 장학금 수혜금액(1년 기준)은 11학년도에 140만원, 12학년도에 195만원, 13학년도에 254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사업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예산의 증가와 함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본교의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은 11학년도에 15만원, 12학년도에 93만원, 13학년도에 104만원으로 2년 사이 약 7배 증가했다.

반면, 본교의 1인당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은 11학년도에 119만원, 12학년도에 97만원, 13학년도에 122만원으로 2년 사이 약 1.03배 증가했다. 2년 사이 1인당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의 차이는 3만원이다.

교육부령 제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즉, 사립대학은 연간 등록금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면제·감액해야 하는 것이다.

본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인 10%를 넘어 13.2%를 학생들에게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감액해 주고 있다.

한편 같은 성북구에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이번 장학금 현황 순위에서 총 장학금비율 순위는 40.5%로 1위를 했고, 교내장학금비율 역시 21.3%로 1위를 차지했다.

본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수한 장학금 지급률이 보이고 있지만, 준수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재원 확충을 통해 더욱 폭넓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순위	대학명	교내장학금비율	순위	대학명	총 장학금비율
1	성신여자대학교	21.3	1	성신여자대학교	40.5
2	서울여자대학교	17.3	2	성공회대학교	38.4
3	숙명여자대학교	16.5	3	그리스도대학교	37.6
4	성공대학교	16.1	4	서울여자대학교	35.1
5	덕성여자대학교	14.5	5	한국성서대학교	32.1
6	국민대학교	14.4	6	삼육대학교	30.4
6	서울기독대학교	14.4	7	서울기독대학교	29.9
8	홍익대학교	14	8	한영신학대학교	29.4
9	삼육대학교	13.6	9	덕성여자대학교	29.2
9	서경대학교	13.6	10	한성대학교	29.1
9	세종대학교	13.6	11	숙명여자대학교	28.8
9	성공회대학교	13.6	12	국민대학교	28.4
13	추계예술대학교	13.5	13	서경대학교	27.5
14	한성대학교	13.2	14	동덕여자대학교	26.8
15	동덕여자대학교	12.9	14	송실대학교	26.8
16	경희대학교	12.8	16	성균관대학교	26.7
17	송실대학교	12.6	17	추계예술대학교	25.5
18	그리스도대학교	12	18	세종대학교	23.8
19	광운대학교	11.5	19	광운대학교	23.6
20	이화여자대학교	11.4	20	갈리외신대학교	22.9
21	서강대학교	9.9	20	경희대학교	22.9
22	한국성서대학교	9.5	22	충신대학교	22.8
23	동국대학교	9.4	23	홍익대학교	22.1
24	건국대학교	8.5	24	이화여자대학교	21.1
25	한영신학대학교	8.1	25	서강대학교	20.9
26	중앙대학교	7.9	26	상명대학교	16.5
27	상명대학교	7.8	27	연세대학교	16.3
28	한양대학교	7.3	28	동국대학교	16
29	연세대학교	6.9	29	건국대학교	15.9
30	고려대학교	6.8	30	고려대학교	15.4
31	감리교신대학교	5.9	31	한양대학교	14
32	충신대학교	5.7	32	중앙대학교	13.8
32	한국외국어대학교	5.7	33	한국의외국어대학교	12
34	장로회신대학교	3.4	34	장로회신대학교	11.5

▲ 대학알리미에 공식되어있는 자료를 근거로 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직과정 임용고시 특강 진행돼

#### 2014년도 교직과정



주최: 교직논술 시험 정책의 이해와 실천전략  
주최: 한성대학교 교직과정  
2014년 9월

지난 9월 29일 교양교직학부 교직과정의 주최로 미래관 ELC에서 교직과정 임용고시 특강이 진행되었다. 강연에 앞서 신재홍(교육대학 원 및 교직과 주임교수) 교수는 "이 특강은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에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져야 하는 자세와 정보를 알려주기 위

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에게 유의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당부 말을 전했다. 이날 전체상(공주교육대) 교수가 현직 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부의 지침들과 함께 변화하는 교직논술 시험 정책의 이해와 실천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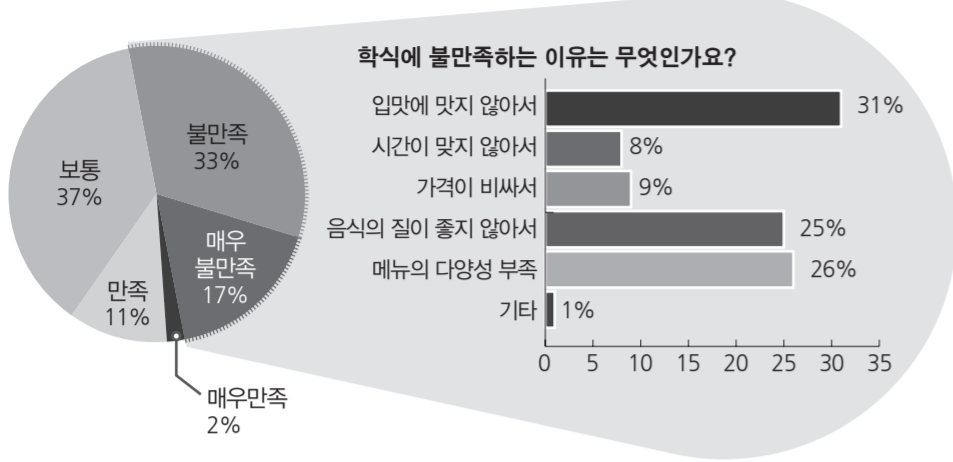
한지선 기자 mongrock@naver.com

**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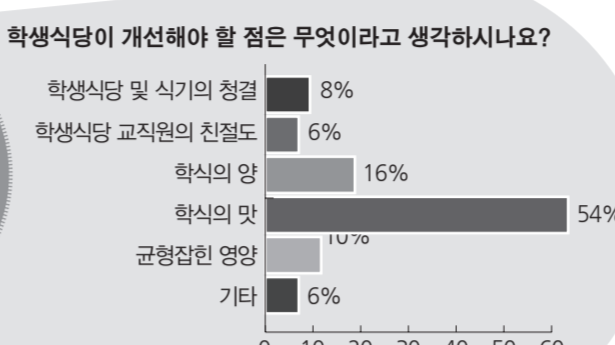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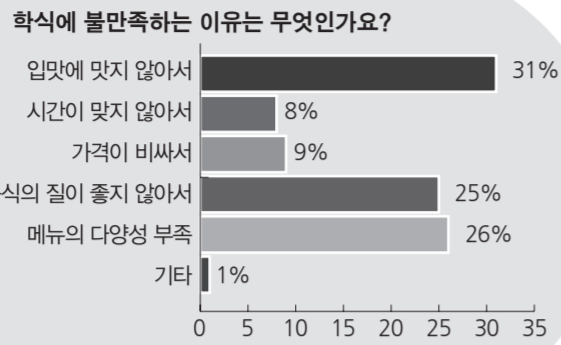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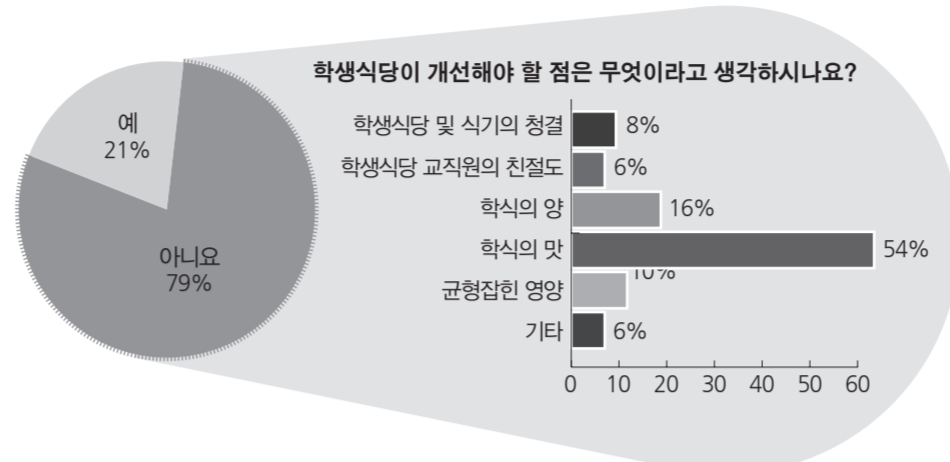
임수습기자 박경호(경영 1)      면정기자 전희민(경영 1)

# 학생식당, 지난해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나?

학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지난 학기보다 학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학기 본지 490호에 학생식당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면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임유나 영양사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불만사항을 개선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식당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난 현재,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달 낙산의 메아리, 페이스북 페이지 등의 커뮤니티에서 '위생이 청결하지 않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양이 적다'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한성대신문은 다시 한 번 학

생식당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면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5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그 중 남학생 74명, 여학생 8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50%가 학식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맛이 없어서' 31%, '음식의 질이 좋지 않아서' 25%, '메뉴의 다양성 부족' 26%라 답했다.

그렇다면 학생식당은 개선하겠다고 한 뒤 5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 변화와 개선을 해 온 것일까. 지난 보도 이후 학생식당에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와 홍보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리가 없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다. 이에 심수연 영양사는 "새로 부임하지 얼마 되지 않아 본교 학생식당에 있었던 문제점과 개선된 부분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을 쓸 수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배치해 두었지만,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급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식이 맛이 없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에 심 영양사는 "학식의 맛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본교 학식의 경우 조

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이라 영양과 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메뉴라 맛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메뉴에 대해 더욱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싶지만 학생식당의 공간이 협소해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매일 새로운 메뉴를 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되어 학생식당 위생 논란을 일으킨 '검은 고무장갑 자국이 올라온 국그릇'은 학생식당 직원이 솥의 걸레 그을린 부분을 만지고 국그릇을 만져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심 영양사는 이번 일에 대해 "낙산의 메아리에서 이 글

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항상 유의하는 부분이 식당내부와 식기의 청결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스럽다"라며 "학생식당에서는 식기와 식당내부의 청결을 중요시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식기 같은 경우 양이 많다보니 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한성대 신문은 학생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학생식당 측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해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식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한성대학교 제10회 한성공학경진대회 성료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교 낙산관에서 제10회 한성공학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본 대회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 대회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 콘텐츠, 로봇과 같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어 총 31점의 작품과 논문 2편이 출품되었다.

Style Fit 스캐너 및 Style Fit 앱을 개발한 최지희(산공3) 학생은 "배운 기술들을 융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이 대회에 참가했다"며 "실제 결과물을 만든 것이 뿌듯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래밍-C 코딩 연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다혜(컴공3) 학생도 "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스마트 스탬프'를 개발한 임현우(멀티4), 서인성(멀티4), 장환(멀티4), 홍영수(멀티4)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마트 스탬프'는 감성을 디지털로 옮긴 모바일 스탬프로 기존에 불편한 쿠폰, 기타 스탬프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이들은 "다른 작품들의 기술이 획기적이라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올해 대회는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9팀, 동상 9팀, 장려상 9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들의 출품작들을 심사한 신성(정보통신학과) 교수는 "난의도, 창의성, 완성도 그리고 전체적인 작품 원리의 이해도를 기준 삼아 심사했다"고 심사기준을 밝혔다.

오혜진 기자 dhgwsls0424@hansung.ac.kr

## “입학 후 생긴 입학자격미충족 이유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부당”

지난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학자격 관련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자격기준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된 등록금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본교대학원은 2010년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그해 9월부터 정월 20명에 한하여 융합기술학과에 주말·야간의 석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및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후 2011년부터 2012년 가을 학기동안 본교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4명이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소기업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서울중소기업청의 실태 점검 결과, 본교대학원은 학생 4명에게 지원된 3,500만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재직을 1년 이상 해야 한다는 입학조건에 부적합한 것이 이유였다. 본교대학원은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교대학원이 학생들의 입학자격요건이 충분히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012년 가을학기에는 본교대학원, 서울중소기업청, 참여기업과의 삼자간 협약이 9월 중순 이후에 체결되었다. 이미 학생 4명은 실질적인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입학한 상태였다. 입학자격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중소기업청의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온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했는가를 확인할 때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입학자격을 누가 추천하고 등록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했다"며 "서울중소기업청에서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다"라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 dhgwsls0424@naver.com

## 독거어르신을 위한 '착한 디자인'으로 수상하다



지난 9월 30일 제품디자인전공 재학생 11명이 성북구청(청장 김영배) 제품디자인공인 교수의 수업의 일환으로 성북구와 연계하여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 제작을 하면서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표창장 전 달식이 10월 1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제품디자인과 학생들은 문찬(제품디자인전공) 교수의 수업의 일환으로 성북구와 연계하여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 제작을 하면서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표창장 전 달식이 10월 1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감사하다.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할머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소담스럽게 보람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문찬 교수는 '지역사회 협력 디자인'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 문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디자인을 배우면서,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봉사와 재능기부가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산업 디자인, 저가 브랜드 디자인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제품디자인과 학생들이 '착한 부자 디자이너'가 되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종합관 공사로 인해 운동장 주차 통제돼

종합관 공사로 인하여 지난 7일부터 운동장이 전면 통제되었다. 총무인사팀에서는 '운동장 통제'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시간대 주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고 《한성공기》에 게시한 바 있다. 종합관이 준공되는 2016년 7월까지 운동장전체와 진리관, 미래관 서측부터 삼선공원 경계 울타리까지 통제된다. 총무인사팀은 '관련 부서에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타진하였으나 입주민의 반대로 무산되

었고 경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자가 밀려있는 등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2016년에 완공되는 종합관은 지난 8월 종합관 신축공사 착공식 이후 공사중에 있다.

최혜정 기자 hippo6@hansung.ac.kr

## 지금 이 순간



▲ 본교 경제학과 26대 학생회 포함 경제학과 재학생 19명은 지난 6월 19일에 한국해비타트 추천지회 건축현장에서 건축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본교 이상한(경제학과) 교수와 그가 속한 한국주거복지포럼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해결을 목적으로 1976년 미국에서 창설된 국제적인 민간 기금과 운동단체이다.

### '학술 정보관에서 지성인을 찾습니다'

# 제4회 독서경진대회

**■ 일정**

- 응시 자격 : 본교 재학생 (학부생)
- 신청 기간 : 2014. 6. 10(화) ~ 10. 31(금)
- 신청 방법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대회 일시 : 2014. 11. 12(수) 오후 4시
- 대회 장소 : 학술정보관 자유열람실(5F)
- 수상 발표 : 2014. 11. 19(수)

**■ 세부 내용**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69선 중 「지정도서 4선」에서 출제
- 문제 유형 : 간략형 주관식과 객관식 (총 44문제)
- 지정도서 4선

**■ 시상**

- 대상 1명 : 상장 및 부상 (5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부상 (30만원 상당)
- 우수상 2명 : 상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 장려상 3명 : 상장 및 부상 (10만원 상당)
- \* 시상별 수상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세부 내용**

- 「한성 권장도서 69선」, 문제 유형 예시, 시상 일정 등의 기타 상세 사항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 \* 위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독서력 향상 및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술정보관에서 제4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분야	서명	저자
문학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철학·사상·역사	고민하는 힘	강상중
정치·경제·사회·예술	희망의 밭상	제인구달
과학	통섭	에드워드 윌슨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 ‘줄 세우기 식’ 대학평가 거부 운동



▲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미움도 받지 않습니다.' 부스 행사 사진  
(출처) 민중 고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 7개 대학 총학생회의 '대학평가 거부' 기자회견  
(출처)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지난 9월 22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홈페이지에 '미움도 받지 않습니다. : 대학순위평가 거부운동을 시작하며'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9월 26일 경희대·동국대·성공회대·한양대 학생회 학생들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 앞에서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 4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거부선언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10월 6일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공개된 가운데 연세대와 서울대가 대학순위평가 거부운동에 추

가로 동참하여 총 7개 대학 총학생회가 중앙일보사 앞에서 '대학평가 거부' 기자회견을 가졌다.

7개 대학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을 서열화 할 수 있다는 마음, '대학을 기업화해도 무방하다는 마음', '모든 대학을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마음', '대학을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마음'을 반대합니다"라며 대학평가 거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학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육 커리큘럼의 체계, 학내 자

치문화의 활성화, 토론의 환경 조성 정도 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순위평가는 오히려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위 명문대에 속하는 대학들이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국대의 경우, '중앙일보 종합평가'의 국제화 부문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동국대는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강의의 30%를 무분별하게 영어로 강의를 채운 결과였다. 이에 많은 동국대 학생과 교수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모국어도 배우기 어려운 학문을 영어로 배워야 하며 교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영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은 "동국대는 굉장히 유서 깊으며 전통있는 불교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고등교육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대학서열화를 강화하고 지표에 맞춰 대학이 다양해지기보다 더욱 획일화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파진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해 본고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본고는 2년

전부터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거부했다. 최윤석(기획전략팀) 팀원은 "언론사들이 평가하는 지표는 공신력이 부족하다. 평가지표 중 '평판·사회진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중소대학들은 대규모 모태대학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본고는 '중앙일보 종합평가' 거부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행정학과가 전국 대학 중 32위로 중상위 대학에 포함되었다. 이에 최윤석 팀원은 "학과 평가는 정부공시에서 정보를 얻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대학은 평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전국 200여개의 대학 중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응한 대학은 총 89개다. '200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응한 대학이 113개였다는 점에서 대학 자체적으로도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은 취업을 위해 교수하고 연구하는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했다. 교육부에서는 각종 평가를 갖대고, 언론사에서 대학 줄세우기로 대학을 재단하고 있는 지금,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언론사도 교육부도 아닌 대학의 구성원이 아닐까?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co.kr

## 현장의 시선

# “수도권대들을 위한辯(변)”

최근 교육부의 지방대 정책을 보면 말 그대로 '갈짓자' 행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대가 정원감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 11월 '지방대 육성방안'을 발표한 뒤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논의되는 등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대를 대략 난감케 하는 통계가 발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2015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정원 감축 비율에서 지방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지방캠퍼스 운영 대학 7개 대학 포함)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 감축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7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363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감축인원의 4.4%에 불과한 수치다. 나머지 모두 지방대의 몫이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대학 학과 통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과 폐교 비율에서 지방대 통합 폐교 건수가 449건으로 6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대들이 교육부의 지방대 정책을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황이야 어찌됐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최근 교육부 정책과 여론의 중심에 지방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대들은 다소 밀려난 모양새다. 오히려 정원감축의 태풍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수도권대들을 향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수도권대들과 지방대 간 격차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빚어낸 산물이다. 지방대 입장에서는 '지역의 차이'가 대학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으니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지방대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배려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수도권대들은 그동안 지역적 특혜를 누리며 호사했으니 교육부의 지원도 줄이고 정원감축도 지방대가 아닌 수도권대들이 우선 총대를 메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만일 역차별로 밀려 수도권대들의

경쟁력이 추락하면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추락하는 법이다.

이에 교육부의 균형 있는 처사가 요구된다. 즉 지방대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동시에 수도권대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대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소외된다는 불안과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공평한 행보도 중요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방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배포하는 자료로 인해 수도권대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한 수도권대 교수는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방대 교수들에게 말했다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다"고 귀띔한 바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수도권대들을 바라보는 현실이 아닐까 싶다. 물론 지방대에 비해 객관적인 경쟁력은 떨어지면서도 수도권이라는 프리미엄만 누리는 대학들이 있다면 우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애시당초 색안경을 끼고 '너희는 배부른 대학'이라는 시각으로 수도권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는가? 수도권대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절실하다는 게 수도권대들을 위한 '辯(변)'이다.

대학저널 정성민 편집팀장

2014년 1위 : POSTECH 2014

종합	교육여건 및 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평판·사회진출도
<b>NO.1 POSTECH</b>				
1 POSTECH	11 동국대(서울)	21 경북대		
2 한국과학기술원	12 이화여대	22 전북대		
3 성공관대	13 건국대(서울)	23 국민대		
4 고려대(안양)	14 인하대	24 한국기술교육대		
5 서울대	15 서울시립대	25 전남대		
6 연세대(서울)	16 아주대	26 가톨릭대		
7 한양대(서울)	17 한양대(ERICA)	27 충남대		
8 중앙대(서울)	18 부산대	28 세종대		
9 서강대	19 한국외대	29 영남대		
9 경희대	20 서울과학기술대	30 숭실대		

▲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 청년 CEO를 만나다

# 반려동물을 위한 SNS, “Hola pet”



▲ 올라펫의 공동창업자인 두사람의 모습 (좌-정진만 대표, 우-김근민씨 이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남자가 있다. 반려동물과 인생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한 SNS, '올라펫'의 '이 에스씨컴퍼니' 정진만 대표이다.

올라펫은 크게 반려동물의 사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SNS 기능의 '올라포토'와 동물병원, 용품샵,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을 위한 매장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검색하고 올라펫 제휴 매장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올라맵', 광고를 시청하고 쌓인 적립금을 현금 받거나 유기동물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광고리워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했던 정진만 대표는 직장에서 모바일과 클라우드 관련 일을 하며 IT분야에 관심이

갖게 되었다. 특히 IT분야 중에서도 사용자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SNS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정진만 대표가 반려견을 기르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창업을 하면 장기적인 사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과 10년에서 15년동안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 대표는 컨설팅 회사의 팀원들과 함께 회사를 나와 '올라펫'을 설립하게 되었다.

정진만 대표는 "올라펫 초기 기획 단계에는 밤을 새면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도 매일 회의하는 것도 행복했다"고 말한다. 기획까지는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에 착수한 후 시장에 상품을 내놓자 정진만 대표가 만난 것은 현실의 냉혹함이었다.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1년이 될 때쯤 올라펫의 서버가 3일간 중단된 것이다.

SNS라는 사업특성상 서버 중단은 회사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개발자가 아닌 정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

다리는 것 뿐이었다. '모든 걸 끝내야 하나'라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정 대표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올라펫'의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올라펫에 대한 사용자의 애정과 걱정이 담긴 메일은 서버 중단을 해결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던 정진만 대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올라펫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닌 서비스의 사용자임을 깨달았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펫을 좋아하고 사용해줄 이용자만 있다면 계속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진만 대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발돋움하여 더욱 향상된 올라펫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말 애견용품물 다루는 온라인마켓이 오픈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는 트레드에서 나온다"며 "대학생은 주 소비층이자 동세대인 20~30대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큰 무기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co.kr

#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학술정보관 서비스

## ✓ 열람실 이용

- 회원과 도서관 열람실을 본교 학생증 하나로 편하게 이용
- 단, 경우에 따라서 회원과 도서관 임시열람증 발급 후 이용 가능

## ✓ 도서 대출

- 본교 미소장 도서를 회원과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이용
- 대출 기간 : 14일, 1회 연장 기간 7일
- 비용 : 직접 도서관 방문 대출(무료), 택배 이용(양복 5,000원)
- 신청 : 본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타기관자료검색(KERIS (RISS 학술정보서비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본교 학술정보관 상호대차 담당 (정미영 02-760-4288, 5669, 4283)

대 학 명	일방(자유)열람실	자료열람실	단체대 대출	비 고
광 운 대	연중			
국 민 대	방학 중			
대 전 대	연중			
덕성여대	연중			
동덕여대	방학 중			
삼 육 대	연중	연 중	연 중	
상 명 대	방학 중			
서 경 대	연중			
서울여대	방학 중			
성신여대	이용 불가			
한 성 대	연중			
명 지 대				

상호이용 협약 논의 중 (2014년 회원가입)

자세한 사항은 이용 대학의 도서관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 정보통신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창업



교단에서

허준영 교수  
(컴퓨터공학과)

인터넷, 웹, 스마트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일상생활에 혁신을 가져온 정보통신기술(CT)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언제 또 우리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안겨줄지 모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방향은 두 가지다. 더 좋은 성능을 위한 발전과 더 쉬운 사용을 위한 발전이다. 쉬운 사용에는 쉬운 개발 방법도 포함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꽤 그럴 듯한 웹 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의 완성도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보다, 쉬운 개발 도구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검증하려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릴까? 혼자 며칠이고 생각하면 나올까? 『탁월한 아이디어 어디서 오는가』의 저자 스티븐 존슨에 따르면 분야가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의

토론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 토론이라는 것에는 커피 마시며 하는 일상적 대화도 포함된다. 영국에서 커피숍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술 대신 차를 마시며 맨정신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고,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산실이 되었다고 농담처럼 말한다.

정말로 아이디어는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자주 나온다. 내가 지금까지 썼던 논문의 아이디어 대부분은 누군가와의 토론과 일상적 대화 속에서 태어났다. 친구들끼리 가끔은 커피숍에서 말이 안 되더라도 수다를 떨어보자. 불편한 것들, 신기한 것들, 재미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진정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아이디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검증하고 상업화시킬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편리한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렵다면 주변 전공자에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다. 상업화를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고 영입

을 해서 팔아야 한다. 즉, 이제부터는 창업이다.

창업!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이 많겠지만 창업자를 도와줄 사람과 기관도 많다. 창업대이나 우리학교 스마트 창작터도 그 중 하나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 시켜줄 기술부터 회사 설립과 운영까지 나머지 부분을 도와줄 멘토가 항상 대기 중이다.

1996년 겨울, 나의 대학 졸업 프로젝트를 위해 친구들과 웹 브라우저에서 하는 온라인 바둑과 보드 게임을 만들었다. 학생이었던 나는 이런 것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3년 뒤 여러분이 잘 아는 H게임이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해서 글자의 IT기업이 되었다.

물론 내가 창업을 했다면 99.99% 실패했을 것이다. 성공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하지만, 대학시절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경험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학 연수하겠다고 휴학하며 졸업을 늦추는데, 창업 좀해보겠다고 짧은 시절을 보내는 게 절대 낭비는 아닐 것이다.

## 월 45만원 원룸에 셋이서 살라니 이게 무슨 소리



기자수첩

임태미 기자  
(시각영상 1)

한 4학년 여대생이 자취를 하면서 한 달 생활비가 총 129만원이 든다며 반값생활비 시위를 했다. 이 시위의 사진은 '4학년 여대생 1양의 한 달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생활비 목록을 보고 생활비가 적정한지 여대생의 사치인지 열띤 토론을 나눴다. 어떤 이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형편이라면 혼자서 원룸 한 달 45만원이 아니라 3명이 살면서 15만원으로 줄여야하지 않나"며 여대생을 비판했다. 그런데 기자는 이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월 45만원의 원룸에서 셋이 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두었다면 이런 말을 뱉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기숙사 수용인원에 밀려나 새 학기마다 자취방을 찾느라 고역을 치르는 대학생에

게 '주거난'은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만큼이나 가슴 답답한 일이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대학 재학생은 218만 7,293명이지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인원은 32만 2,056명(14.7%)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지역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다른 지역 출신으로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 중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인원은 33.8%에 불과한 것이다. 운 좋게 기숙사에 들어간다 해도 비싼 기숙사비가 따라붙는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3년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의 민자 기숙사 비용은 3인실조차 31만 4,800원, 4인실 이상은 24만 6,400원으로 조사됐다. 기숙사에 살아도 3명이 월 15만원에 사는 것은 무리라는 소리이다. 하물며 자취방이 월 15만원으로 해결될까? 정말로 그

렇게 생각했다면 20대가 힘든 이유가 단지 '주거난' 때문은 아닐 것이다.

대학생 43%가 최저주거면적 '4평 이하'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최소 주거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것이다. 당장 주변 친구들만 봐도 좁은 고시원에 지내면서 매달 월세로 40만원 가까이 내는데, 그마저도 보증금이 적으니 감지덕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최저주거면적 4평 원룸도 없다고 셋이서 살라는 잔인한 말을 뱉는다. 얼마나 우리를 쥐어짜려는지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대학생은 정심머리가 글렀다는 것이다. 제발 이미 아픈 청춘들에게 가혹한 말로 상처 주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학자금 대출과 낮은 최저임금, 주거난 속에서 그토록 어른들이 강조하는 취업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다.

## 소개합니다, '한성 튜터링'



낙산에 올라

윤호석 학생  
(경제 4)

과대표, 동아리 회장, 다문화 멘토링, 기업은행 서포터즈, 심지어 학군단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 중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일까 생각해왔다. 바로 '한성 튜터링'이다.

'한성 튜터링'은 특정한 전공과목을 1주일 2시간 8주 동안 5명의 튜터(튜터링을 받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활동이다. 매 학기 초에 모집한다. 해당 전공과목 성적이 A0, 평점 3.5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나는 2학년 2학기 '경제원론2'과목을 시작으로 4학년 1학기까지 '한성 튜터링'을 했다. 2학년 1학기 때 '거시경제학'과목의 튜터링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튜터링을 받으면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평소

발표나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튜터들에게 핵심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니 까다로웠다. 매주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지도 잘 몰랐다.

하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다. 먼저 장학금이 있다. 튜터링 활동을 하면 보고서, 튜터링의 성적, 평가 등을 통해 A(30%), B(40%), C(30%)로 등급을 나눈다. 한 학기에 A등급은 70만원, B등급은 60만원, C등급은 50만원을 받는다. 학기 중에 근로와 함께 튜터링을 하니 따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로 '설명능력'이 향상된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교수님처럼 강의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족집게로 시험에 나올 것만 짚어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

떤 스타일이던 간에 말로 핵심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 나도 튜터링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설명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튜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더라도 튜터링 활동을 하면서 매주 만나니 친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튜터링 활동이 다 끝나고 매번 회식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마지막 튜터링을 제외한 세 번을 12학년 후배 5명과 같이 했는데 지금은 동기들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장학금, 설명능력, 친목도모까지. 우리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한성 튜터링'만한 것이 있을까. 다른 활동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한성 튜터링, 꼭 지원해 보길 바란다.

· 사 설 ·

## '학습된 무력감'

지금부터 거의 1년 전 한성대신문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모면(謀免)한 우리대학'이라는 사실이 실렸었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이미 충분히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대학은 수도권 대학 특성과 사업(CK-II)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86%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는 등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큰 파고를 넘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향후 일정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앞서 좋지 못한 결과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과 오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더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무력감(無力感)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1967년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상자에 개를 집어넣고 바다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음을 경험한 개는 이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을 학습한 것이다. 무력감은 반복되는 실패에 기인하게 되는데 대학 특성과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또 한번의 아쉬운 결과를 받으면서 무력감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결과들이 우리대학의 역량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작은 실패에도 대학 구성원들의 무력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마틴 셀리그먼 교수의 연구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언급한 것은 현재 우리대학이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셀리그먼 교수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학습을 통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긍정심리학의 핵심이며 모든 일의 성취는 결국 일을 대하는 자의 마음에서 달렸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들이 작은 성취감이라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대학은 국내-외로 크고 작은 MOU를 맺었고, 종합관 신축, 1호 학교기업 설립 등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록 이전의 아쉬운 결과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깊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우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혼란스럽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단련시키고 최근에 발표된 '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새롭게 구성될 본부조직은 우리대학이 깊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한성대 신문에 어떤 제목의 사실이 실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대학'을 위해 구성원 각자가 진정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유령이 되는 법

유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 혹은 그러한 혼령 자체를 일컫는다. 오늘은 굳이 죽지 않고도 유령이 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하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상이 되면 된다.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상태로 곳곳을 배회하면 된다. 여럿이 배회할수록 '유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 세 번째 이를 무수히 반복하면 된다.

'유령'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령'이기 때문이다. 두 점의 대조비가 가을바람에 펄럭이고 백지의 신문이 기억의 저편에서 잊혀지는 지금, 우리 학교는 다가오는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특성화 사업 탈락, 재정지원기능대학 선정, 구조개혁 평가. 학생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

른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하지만 누가 학생들의 학사제도를 재단하는가, 누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단순 수치로 정리하는가. 그리고 누가 대학을 순위 매겨 줄 세우는가. 이미 유령인 우리는 학교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두려워할 만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유령들만 알고 있다. 피켓을 들고 일어나자는 말이 아니다. 더는 무력한 유령이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유령이 되지 않는 법은 어렵지 않다. 첫 번째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을 소리 높여 말하면 된다. 두 번째 그러한 목소리가 단 한 명도 아닌 '한성인'의 목소리로서 메아리친다면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 세 번째 이를 무수히 반복하면 된다.

이제는 단순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의 발전에 그 누구보다 큰 박수를 치고, 학교의 문제에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학생'이다.

## 공대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성인께

양남철 공과대 학생회장  
(정치 4)

작년 정보시스템학과 학생회장을 활동을 거쳐 올해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공대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힘들게 투표를 거쳐 뽑힌 만큼 그만큼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공과대 학생회장으로서 공대인들의 복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공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소한 것까지 귀기울여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학과 학생회장을 할 때 보다는 물론 더욱 더 어려움이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조력자

분들이 있기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선 이후 학기 초반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가 무산됨에 따라 예상치 않게 공약사업의 일환이었던 공대 엔터를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학생의 참여가 적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한창 바쁜 시기에 각과 학생회장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야식 사업, 공학용계산기 사업 등은 원활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참여 인원이

라든지 알고 계신 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공대학우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학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단지 몰라서 외면되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1학기의 배움을 경험삼아 더욱 더 나아가는 공대를 만들고 저 또한 제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열심히 하여 공대에 걸맞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적극적인 공대 학우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낙산만평

한지선(의생활 1)





# 우리말의 유래, 사전만 보서는 알 수 없다?

흔히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해외에서 패거리를 거두면 국위선양했다고 말한다. '국위선양'은 '나라의 권력이나 위엄을 널리 떨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로 남은 말이다. 국위선양의 어원은 '億兆安撫國威宣揚(억조안무국위선양)의御宸翰(어신한)'이다. 이는 '신하들은 천황을 도와 국가를 지키고 황국신민을 있게 한 시조신을 위로하여 일본을 세계만방에 알리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위선양이란 메이지 정부를 세계만방에 자랑하자는 말로, 일제강점기 미나미 총독의 조선인 길들이기 5대 지침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금메달을 딴 것이 정말 국위선양일까? 우리는 여태 어원을 모른 채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그저 좋은 뜻으로 쓰고 있었다.

국위선양뿐만 아니다. 국민의례, 서정세신, 멸사봉공 등 좋은 말로만 알고 쓰던 것들이 사실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인 줄 누가 알았을까. 『오염된 국어사전』, 『사쿠라 훈민정음』의 저자인 이윤옥(한일어울림문화연구소) 소장이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남은 일본말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윤옥 소장은 "민족 자존심을 해치는 말들을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걸러지지 못한 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스럽게 사용하



▲ '국민의례', '멸사봉공', '국위선양'은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용 단어들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 말이다.

고 있다"며 이를 '『표준국어대사전』의 부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부실하다니. 어떤 이유에서일까?

## ‘국민의례’ ‘멸사봉공’도 일본의 잔재

순국선열의 날, 삼일절, 광복절은 물론 학교의 입학식, 국가 주요행사에는 빠짐없이 '국민의례'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민의례를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에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격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따위의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제 강점기에 뿌리내린 말이다. '국민의례'는 일본기독교단이 정한 의례의식으로, 구체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시대 궁성오배, 기미가요 의식제창, 신사참배 등의 의식을 일컫는다.

영화 <명량>이 흥행하자 여기저기서 이순신 장군의 멸사봉공 정신을 이어받자고 주장한다. 사육을 버리고 공의를 위해 힘쓴다는 뜻의 '멸사봉공'은 천황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쓰던 말이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뜻을 가리킬 때 '배사향공(背私向公)' 혹은 '지봉공(只奉公)'이라 말했다. 우리

가 지금 쓰는 멸사봉공은 황국신민, 내선일체, 신사참배와 동일시되던 말이다.

## 일본말이 한국말로 둔갑하거나, 한국말이 일본말이 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장군'은 '겨울 장군이라는 뜻으로 혹독한 겨울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짧은 설명이 전부다. 그렇다면 동장군(冬將軍)의 어원은 어떨까? 일본 국어사전에서는 동장군(후유소군)이 니콜레옹이 모스크바 원정을 나서면서 겨울의 혹한과 눈으로 실패한데서 유래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윤옥 소장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장군'은 겨울 장군이라는 식으로만 풀이하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다. 국립국어원에 동장군의 어원을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앞을 때 끼는 방식을 '자부동'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찾을 수 없다. 방석을 가리키는 경상도 사투리로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사실 자부동은 일본말이다.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단품(단발), 시뻘(질질), 유도리(윙통성, 여유)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일본말들이다.

국립국어원이 일본말의 대체어를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립국어원의 '무원칙'이 드러난다. 고쳐야 할 일본말이 아닌 우리나라말을 일본어로 잘못 분류하고 순화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양돈'이 그

예이다. 국어사전에 양돈을 찾으면 '돼지를 먹여 기름. 또는 그런 돼지. 돼지치기로 순화'하라고 나온다. 왜 돼지치기로 순화하라는 것일까. 이 말은 조선시대에도 쓰이던 우리말인데 어느 순간 일본말로 둔갑했다.

이윤옥 소장은 이같은 국립국어원의 무원칙을 비판하며, 원칙을 세워 말의 유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출판할 때, 책 제목을 '표준국어대사전을 불태워라'라고 지으려 했다. 한국말이 일본말이 되고, 일본말이 한국말로 쓰이고 있는 실태가 안타깝다"며 쓴소리를 보였다.

오히려 대체어가 어색해 사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라 철없는 기자의 질문이 이윤옥 소장은 "지금 고속도로의 '갓길'도 한때는 일본말인 '노견'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물론 말을 바꿀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바꾸려는 의식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을 '새내기', 탈북자를 '새터민'이라 대체하듯이 일본말이 우리 삶에 깊숙이 사용되고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윤옥 소장은 "요즘 20대가 재미로 일본말을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말은 때와 장소를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20대가 먼저 바른 우리말을 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국어원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일본말을 쓰지 않도록 우리의 사상과 일이 담긴 우리말로 대체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오염된 국어사전', '사쿠라 훈민정음'의 저자 이윤옥(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 뚝!뚝! 연구중이세요?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대학연구소'는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과 모험적인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 ④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연구 /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외부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중인 김홍배(제품디자인전공) 교수.

## 서비스 디자인 시대, 길을 제시하다

세계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며,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디자인 산업에서 역시 '서비스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서비스 기획 초기단계에 디자인적 발상을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 중심의 개선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디자인 회사 서비스 디자인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김홍배(제품디자인전공)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 융합형 디자인 컨설팅 지원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개의 참여기관이 진행되는 이 연구는 본교가 주관하여 올해 마지막 4년차가 접어들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책임은 맡은 김 교수는 "서비스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용자들의 경험이다. 디자인 회사들이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과 지원기술을 디자인 회사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용역만 담당하던 전통적인 디자인의 회사가 서비스 영역까지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 평가모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서비스 디자인 연구뿐만 아니

라 두 번째 사업도 시작했다. 올 6월부터 그는 '3D프린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D2B(Design-To-Business) 클라우딩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D프린팅이 보편화되면서 제조업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큰 파급효과를 겪고 있다. 3D프린터가 보급되면 집에서 데이터를 내려 받아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제조업의 기반을 무너트리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의 물건을 직접 제조·유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건도 MP3 음악 파일처럼 콘텐츠로 생산할 것이다. 디자이너야말로 3D프린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장 효과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디자이너가 만든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3D프린터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장을 위한 저작권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김홍배 교수는 외부 산학협력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우리학교는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이 늦게 시작된 감이 있다. 우리학교는 지리적으로 문화, 예술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디자인과 예술분야가 크게 성장하기 유리하다"며 "산학연계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러한 산학협력에 본교 특성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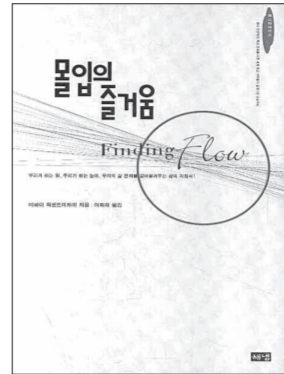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오픈BOOK 테스트

“오픈 북 테스트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전공 서적을 몰두하여 읽어 내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시험 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이다. (편집자주)”

“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찾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몰입할 수 있고, 이 몰입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논리적인 글을 읽고 감동을 받길 바란다. ”

- 문찬(제품디자인전공) 교수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 해냄출판사 / 2010. 03. 05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 한국경제신문사 / 2009. 08. 10

### 몰입의 즐거움

'몰입' 개념을 전파하는 행복 이론서 『몰입의 즐거움』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삶이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몰입'이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일컫는다. 저자는 체계적인 설명과 다년간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과 놀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다음, 자기 만족을 즐기 위해서는 집중력, 즉 몰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몰입의 재해석 (자기진화를 위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바로 이런 의문에 답하고자 전작 『몰입』에서 플로우 상태 즉, 몰입 속에서 최고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음을 증명했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가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몰입의 힘을 보여준다. 플로우가 단순히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식을 확장해 자기진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 인문하는 너

“인문하는 너는 성적,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통찰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문학 칼럼 코너입니다.”

## 고전을 읽는 이유와 가치

"지금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과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진정으로 문화 그 자체가 되고 무엇을 생산하려고 한다면 문화와 그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독창성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과소 커뮤니케이션 아래에서만 문화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와 의미』라는 책에서 과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주요 뉴스와 기사들을 읽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 이제 지구촌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 구석의 소식을 쉽게 접하게 되어서 전 세계의 문화공통체로 묶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소외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람들 혹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느라 자기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정체성과 창의성의 문제로 드러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공부를 하고 비슷한 뉴스를 듣고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자기만의 정체성은 희미해질 것이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나만의 정보, 나만의 독서, 나만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때 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탐색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고전이다.

고전은 주로 세상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탐색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아닌 숨겨진 세상의 본질과 삶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다. 요즘 시대에 고전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런 인간근원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정체성과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왔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며 살아간다. 자신이 가야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럴 때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고전은 인간이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를 살피도록 도와준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확신과 지침을 제공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천복을 따르며 그 속에서 자기가 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생각,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창의성을 발휘시킨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가위주의 교육을 경험해왔다. 배운 것을 평가받고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나은 돈벌이를 하는 시스템에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능력을 넘어 사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능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전은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고전의 가치이며 의미인 것이다.

### 안상현

자기개발과 책임의 전문가

저서 『창춘의 인문학』 『인문학 공부법』

# SIDANCE, SEE DANCE

## ‘SIDance 2014’ 서울세계무용축제

올 가을에도 역시 무용을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주목할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2014’(이하 시댄스)가 시작됐다. 올해로 17년을 맞이한 시댄스는 지난 9월 25일 개막하여 오는 18일 까지 세계 각국 최고 수준의 무용과 연극 작품들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매년 시댄스를 통해 세계적 거장들의 명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9월 27일 개막공연을 맡은 필립 장띠 캠퍼니의 <나를 잊지마세요>는 무려 10년만의 내한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필립 장띠의 초현실적인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했다. 이외에도 시댄스는 19개국에서 건너온 62개 팀의 59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지금까지 놓친 공연들이 아쉽다면 앞으로 펼쳐질 공연에 주목하자. 오는 17·18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선보이는 헝가리 호드워스의 <새벽>은 4인의 남녀가 공연 내내 벌거벗은 몸으로 강렬한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이다. 무용작품에서 무용수의 의미를 되짚는 <댄스의 순정>도 오는 15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볼 수 있다.

서울세계무용축제의 이종호 예술감독은 “17년 동안 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창작 수준과 안무력이 굉장히 발전했다. 18일까지 공연이 계속되니 많이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댄스 축제의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기자는 더 많은 작품을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 링가무용단의 <신체지도 그리기>, 시나브로 가숨에의 <이퀄리브리엄> 두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 링가무용단 <신체지도 다시 그리기> 리허설을 하는 모습이다.

## 동작을 듣고 음악을 본다!

지난 10월 3일 예술의전당 CI 도원극장에서 링가무용단의 <신체지도 다시 그리기> 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의 첫 시작 부분,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함께 한 여자 무용수가 등장해 천장에 매달린 생체 모니터들을 앞뒤로 움직인다. 곧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이 기계장치들을 몸에 부착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사운드도 변화해 반복한다. 우리의 신체가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다.

링가무용단은 과학기술을 인체에 접목시켜 우리의 몸과 과학 사이의 상호작용을 춤과 사운드로 구현해냈다. <신체지도 다시 그리기>를 통해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기술이 춤의 언어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동반자 역할을 한다. 링가무용단은 팔과 다리에 무선 생체모니터를 착용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사운드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상호적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를 활용해 몸으로 소리를 만드는 무용수들은 자신의 신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들의 섬세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과학기술과 만나 예술적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링가무용단은 현대극에서 시바신을 상징하는 남근상, 링가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1992년 창단했다. 스위스 로잔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링가무용단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현상이 몸에 끼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주력해 왔다. 현재 약 40개

가 넘는 작품을 발표해 스위스 현대무용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이런 세계적인 무용단인 링가무용단의 안무가는 까타리나 그다니에츠, 마르코 칸탈루포 부부이다. 링가무용단의 본 공연을 마치고 30분간 진행된 ‘예술가와의 대화’에서 많은 관객들이 무용과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사운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안무가 중 한 명인 마르코 칸탈루포는 “움직임이 소리를 창조한다. 생체모니터가 움직임을 속도, 방향성, 근육의 수축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읽어 컴퓨터로 전달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신체지도 다시 그리기> 무대의 핵심을 밝혔다.

공연의 사운드의 종류가 변화될 때마다 무용수들의 복장이 매번 바뀌는 것도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르코 칸탈루포는 “처음에 시스템을 작동하는 부분은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간단하게 의상을 착용했다”며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링가무용단의 공연은 ‘동작을 듣고, 음악을 보는’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과의 관계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이들의 강렬하고 관능적인 감각에 이끌려 무대를 보고 나면 우리의 신체 지도를 다시 그린 셈이다.

오혜진 기자 dhgplw0424@hansung.ac.kr

## 연들♥연들

‘연들연들, 연애고민 들어들어오는 한성대 학우들이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려는 단계에서 겪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대학 입학 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캠퍼스 커플인 ‘CC’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CC에 대한 로망도 크지 않았고 CC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었기에 학교에서 연애를 하지 말자는 생각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 호감있는 남자선배가 생겼습니다. 자상한 선배의 모습에 끌리는 반면에 이 호감이 오빠로서 인지 남자로서 인지 헷갈렸습니다. 그 선배와 저는 잠깐 동안의 썸을 탔지만 어느 순간 흐지부지해져 지금은 그냥 친한 선배로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선배에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가 꺼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기류를 눈치 채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싫고 제가 선배에게 이 이상 다가가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아직도 오빠로서 좋은지, 남자로서 좋은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선배를 좋아하는 감정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저,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걸까요?

## “ 좋아하는 감정도 관념에 불과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

사실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따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좋아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선배를 향한 마음을 구체화 시켜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누구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고, 둘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는 본인의 감정이 더 중요하나요?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기분이 불명확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귀더라도 금방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큼니다. 세 번째,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만큼 반응하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은 감정일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을 좋아해 줄 때만 반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과 감정은 함께 반응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컷눈에 반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그를 좋아하는지 이성적 주관(상대의 취향, 기호, 품, 대화, 성장 등)이 분명해야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과 사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생각이 많다고 여기기보다 자기 주관에 분명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송창민

『연애의 신』  
『연애 바이블』의  
저자이자  
연애 컨설턴트  
다음카페  
송창민의 이기적인  
연애 운영 중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  
lovestudy78



**다원:** 다원이라 '모두가 원하는'이라는 순 우리말로 한성대 학우 모두가 좋아할만한 연극표를 드리는 독자 참여형 이벤트 코너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495호 신문을 읽고 독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신의 흥미를 끄거나 마음에 드는 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발칙한 로맨스' 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지난 494호의 당첨자는 김아현(행정 2), 백승진(멀티 3), 이지윤(의매 4), 임장백(산공 1), 최종민(기계 1)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두 남자의 거친 움직임속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을 보다!



▲ 시나브로 가숨에의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연습을 하는 모습이다.

SIDance는 지난 2007년부터 완성도 높은 합창무대를 선별하여 선보이기 위해 ‘합창의 진화’를 기치로 하여 올해 8번째 주인공을 맞이했다. 바로 ‘류정현과 친구들’, ‘시나브로 가숨’에 두 팀이다. ‘시나브로 가숨’은 본교 무용학과를 졸업한 이재영 안무가의 1인 단체로, 춤·마임·연극·음악·영상·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작업을 시도하여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모습을 선보인다. 이번 ‘시나브로 가숨’의 작품 <이퀄리브리엄>은 에너지와 표현력을 겸비한 무용수라 인정받고 있는 이재영 안무가의 신작으로, 무용수 권혁과 함께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10월 8일 본 공연을 앞두고, 기자들은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 공연을 위해 연습에 한창인 ‘시나브로 가숨’에 팀을 만나러 본교 낙산관을 방문했다. 사랑이 거울로 둘러싸인 연습실에서 축제 공연 준비에 한창인 두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거친 숨을 들이쉬며 그들만의 힘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다양한 춤동작으로 균형을 표현하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동작은 위압감을 주는 동시에 감동을 주었다. 특히 빨라지는 음악과 함께 연습으로 바다

에 상체를 숙이는 동작은 무섭기까지 했다.

작품의 제목을 ‘이퀄리브리엄’이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영 안무가는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은 ‘균형’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사회적인 의미,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빈부격차, 권력구조, 인종차별과 같은 불균형의 모습을 담으려 했다. 이 작품은 이미지만 부분보다 움직임이 많은데, 우리의 움직임은 ‘엔트로피의 증가법칙’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계층과 이념이 대립되는 사회 속에서는 항상 기존의 규칙들을 깨려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기존에 있던 규칙을 깨고 또 다른 규칙들이 새롭게 생기고 다시 깨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또 이런 반복되는 순환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균형, 불변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퀄리브리엄’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두 남자는 어떤 몸짓으로 표현할까. 두 남자는 서로 다른 높이의 몸을 누르는 안무로 무질서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또 무너지고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순환’을 표현해낸다. 이재영 안무가는 “우리의 움직임은 그래프처럼 상승하다가 이내 균형을 이룬다. 현대무용도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기보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한 동작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본 공연 역시 두 남자의 격렬한 움직임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성공리에 공연을 마친 뒤 ‘시나브로 가숨’의 이재영 안무가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답게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재영 안무가는 “현대무용 작품을 어렵게 생각할 것 같다. 자연스럽게 작품 전체의 움직임과 표현들을 보고 느낀 그대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공연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발칙한 로맨스

2014.05.16 ~ OPEN RUN 대학로 트메이아트씨어터

평일 5시, 8시 | 토요일 2시 30분, 5시, 7시 30분 | 일요일 2시 30분, 5시 (월 일)

프로듀서 김수원 | 작곡가 안종필 | 연출자 박재민 | 제작 LEILLER ASIA THEATRE | 기획 LEILLER | 공연 문의 LEILLER 010-2101-2633

# 제29회

#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접수마감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까지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주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 제출형식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5편 이상)

###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 로 제출 (e-mail만 접수 받음)

###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 발표

한성대 신문 497호 (12월 1일 발행)

###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시 - 40만원 및 상패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12월 1일에 발행하는 한성대 신문 제497호에 게재됩니다.

